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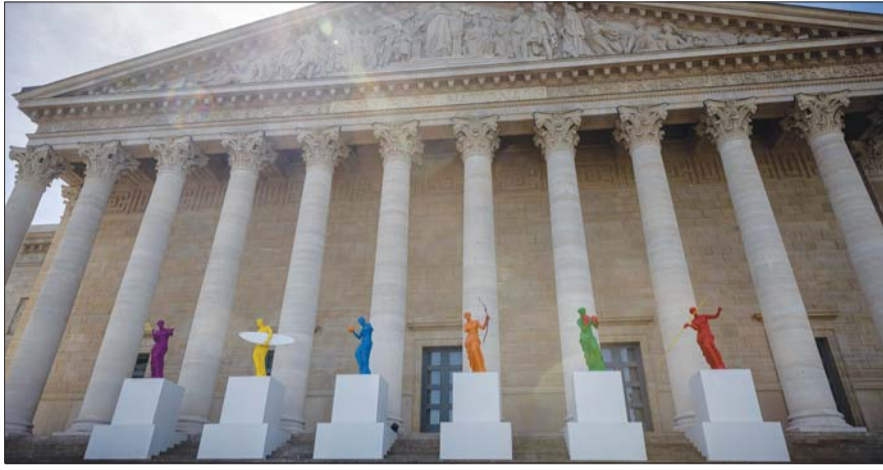
태양광 단지 조성·노숙자 현금지원... 세계도시, 이색 정책 실험

파리, 공공장소 광고판 제거 예정
늦은 저녁~새벽 시간대 거리 소등
시카고시, 공공전력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장소 광고 제한, 태양광 단지 조성, 노숙자 현금 지원 효과 분석...’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색적인 정책 실험을 통해 사회 혁신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14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는 오는 2026년까지 공공장소에 설치된 광고판을 제거할 예정이다. 소비주의의 산물인 상업광고가 기후변화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정책이다.

현재 파리의 공공거리에는 약 5800개의 광고판과 광고 기둥이 설치돼 있으며, 4x3 광고판과 디지털 스크린은 이미 설치가 제한된 상태이다. 서울연구원은 “파리는 무조건 광고를 없애는 게 아닌, 광고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또 약 8억 1000만유로(한화 약 1조 1939억원)의 광고 수익을 포기하는 데 따른 대안도 필



프랑스 파리 국회의사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AP 통신·뉴스시

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파리는 늦은 저녁과 새벽 시간대(밤 11시45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거리 광고 조명 소등을 의무화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시간에 따라 오후 11시45분부터는 지하철역, RER 파리 교외선역,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 조명판의 불도 꺼야 한다. 파리 수도권 교통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을 물거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공공거리 상업광고 제거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 투표를 실

시할 예정이다. 키오스크나 버스 정류장의 기존 광고는 그대로 두고, 역사적 기념물 등 문화유산 관련 대형 광고 배너, 민간 건설 현장 광고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유지와 제거 대상 광고판의 종류를 선별하고 그 위치를 선정하는 내용의 투표이다.

서울연구원은 “거리의 수많은 간판으로 서울을 기억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비교해 볼 만한 사례”라며 “이번 정책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포기하고 에너지 절약 등 환경 문

제에 집중하는 파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모든 공공시설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키로 했다. 태양광 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카고시는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와 4억2000만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공급 계약 맺었다. 향후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인 ‘더블 블랙 다이아몬드 태양 에너지 단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한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시카고시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 및 재생에너지 사용 방침은 파리, 도쿄 등 세계 유수 대도시의 에너지 전환 흐름과 일치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노숙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 프로젝트가 시행됐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립대학 연구진

은 22개 노숙자 촌에서 100여명의 노숙자를 모집하고 무작위로 현금 지원을 받는 그룹 50명과 받지 않는 대조군 50명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현금 지원 이후 3개월 주기로 지원 대상자들을 1년간 추적 관찰했다. 조사 결과 수혜자들은 대조군보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55일 더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들은 술, 마약, 담배에 대한 지출을 평균 39% 줄였고, 대조군보다 저축도 많이 했다.

뱅크비의 쉼터 체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1박당 93달러(약 9만3000원)임을 고려하면, 쉼터에서의 숙박 일수를 줄임으로써 수혜자 1인당 8277달러(약 822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노숙자들이 지원받은 현금을 술과 마약 등으로 탕진했을 거라는 보통의 선입견을 깨고 지원금 대부분을 생활비에 사용했음이 드러났다”면서 “현재 더딘 성과를 나타내는 주택 공급, 숙소 지원 등에 편중된 연방 및 도시 노숙자 정책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캠퍼스타운, 1000개 창업기업 육성

일자리 제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전문가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서울시는 청년 창업의 디딤돌이 되는 ‘서울캠퍼스타운’에서 올해 1000개의 창업 기업을 육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캠퍼스타운은 청년에게 창업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2017년부터 대학, 자치구와 협력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8년간 2286개의 초기 스타트업에 발굴해 지원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대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에니아이의 소리 로봇 ‘알파그릴’. /서울시

시는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과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육성할 창업기업은 대학별로 개최하는 입주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시는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대학 및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에서는 다양한 해외 투자처 발굴을 위한 글로벌 투자기관 연계 데모데이를 열고, 세계대전전시회(CES)와 같은 해외 박람회 참여를 지원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세월호 10주기 추모’ 주간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하며 ‘국민안전의 날’ 안전주간을 26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국민안전의 날’ 주간을 위해 관내 학교에 세월호 10주기 관련 계기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학교에서 4월 중 자율적으로 추모 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주간에 학생회 중심의 세월호 추모식, 추모 리본 달기, 추모 편지쓰기, ‘인권·안전·우리가 만들어 갈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한마당’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실시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

로 두고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업무 담당자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중 41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893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대응투자를 통해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재난·안전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분야 전문교육을, 11일에는 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개관하는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현진 기자 lhj@

마곡~잠실 한강 위로 잇는 리버버스 띄운다

서울시 선박 8대 건조 작업 시작
한번에 199명 탑승... 10월 이용

서울시는 한강에 도입되는 수상 대중교통 ‘한강 리버버스’ 선박 8대의 건조 작업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독섬·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이다.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하루 68회 운행하며 한번에 199명이 탈 수 있다. 요금은 3000원이며, 기후동행카드 6만

8000원권을 구매하면 무제한 탑승 가능하다.

한강 리버버스는 길이 35m, 폭 9.5m, 150t급 선박으로 제작된다. 선박 외관은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고 연료도 약 35% 절감할 수 있는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다. 디젤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가량 적은 전기-디젤 하이브리드도 탑재된다.

시는 리버버스 선착장 7개도 이달 중으로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선착장 설계를 마치고

공사 발주에 들어갈 것”이라며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하고 선착장 인근 보행로·자전거 도로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 건조는 물론, 선착장 조성, 접근성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이 10월에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57 | 해질 / 19:08

4월 15일 (월)
음력 : 3월 7일

수도권 날씨
17~1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5/19, 동두천 15/19, 가평 13/18, 파주 14/19, 서울 17/19, 양평 15/19, 인천 17/18, 수원 17/18, 용인 17/18, 평택 16/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獨·프랑스·캐나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강력 비난
▲유엔 이란대표부 “이스라엘 공격 중료된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 /사진 뉴스시

▲ 이란, 유엔에 “안보리 침묵 유감... 갈등 추구 안해”
▲ 이스라엘 “국가안보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다 할 것”



▲ 바이든 “G7 소집해 이란 공격 대응”... 군사보복엔 부정적
▲ 최상목, 중동 정세불안에 “합동 비상 대응반 매일 가동” /사진 뉴스시